

中世語의 口訣記寫 資料에 대하여

安 秉 禧*

《차 례》

1. 序 言
2. 心經附註의 口訣記寫
3. 誠初心學人文의 口訣記寫
4. 結語——關聯 口訣記寫 資料

1. 序 言

刊本과 寫本(鈔本)을 莫論하고 책에는 책의 內容과는 아무 相關이 없는 文書가 있는가 하면, 本文과 關聯된 墨書의 記入이나 附箋이 나타나기도 한다. 前者의 경우로서는 廢棄된 古文書를 冊紙로 利用한 이른바 紙背文書를 들 수 있다. 後者의 경우로서는 釋譜詳節과 乙亥字本 楞嚴經諺解의 校正을 그 著明한 例라 할 것이다.⁽¹⁾

그런데 墨書記入은 先儒의 手澤本일 경우에는 誤字를 校正할 뿐 아니라 本文評釋까지 걸쳐서 행하여진다. 그러한 評釋은 그 方面 專門家에게는 여간 貴重한 資料가 아니다. 그러나 國語學에 관한 限 그와 같은 墨書記入은 아직 發見된 것이 없다. 오직 國語史資料로서 口訣의 記寫 곧 懸吐를 볼 수 있다.

口訣이 記寫된 現存資料는 相當한 量에 이르고 있으나, 그 印刷된 資料와 마찬가지로 15世紀를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²⁾ 물론 14世紀의 刊本에도 口訣이 보인다. 1378년에 刊行된 白雲和尚語錄이 그것이다. 卷頭의 序(張 1~4)에 단 局限되었으나, 略字와 正字로서 行間에 記入하여 놓았다. 그 口訣의 表記를, 略字를 正字로 고쳐 보이면 다음과 같다.

爲也, 乎隱矣隱, 奴多(이상 1a), 於是, 是, 是羅, 面, 里三, 厓, 爲尼, 衣, 爲奴羅(이상 1b)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教授

(1) 紙背文書와 校正에 대하여는 筆者의 다음 글을 참조.

古書의 紙背文書에 대하여——排字禮部韻略에 보이는 際畧을 中心으로——, 圖書館報(서울大學校圖書館) 第11卷(1975), pp. 2-10.

釋譜詳節의 校正에 대하여, 國語學 2(1974), pp. 17-29.

(2) 筆者가 實查한 口訣資料는 借字表記인 경우 16世紀의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런데 李仁榮氏(淸芬室書目 p. 35)는 世宗朝의 庚子字本을 覆刻한 小學大全을 所藏하고 있었는데, 그 책에는 借字로 口訣이 달려 있다고 한다. 그 책의 現存與否를 도르게 된 것은 유감이나, 가장 빠른 刊本資料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資料도 15世紀 中葉의 口訣資料인 것이다. 그런데 高麗時代의 口訣資料라고 하는 舊譯仁王經은 여기서 考慮하지 않는다. 그 책의 墨書는 15世紀以來의 口訣——事實 口訣이란 用語는 15世紀에 비로소 文證된다.——과는 性格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口訣記寫의 年代는 반드시 刊年과 같은 것이 아니다. 刊年이 그 年代의 上限이라고 일단 推定될 뿐인 것이다. 이 白雲和尚語錄에는 같은 筆致로 漢字의 字음이 한글로 記寫되어 있다. 즉 髡髮齋(序 3a). 그러므로 이 口訣資料는 年代의 上限이 15世紀 中葉 한글創制까지 내려오는 셈이다. 더욱 字音表記가 東國正韻을 따르지 않은 점으로 본다면 16世紀資料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下限이 16世紀라는 斷定은 如前히 問題이다. 口訣의 表記로서 推定할 수 있을 뿐이나, 17世紀 以後에 擬古의인 表記를 하지 않았다는 保障은 없다. 그런데 책의 傳承關係로 年代를 알게 되는 때가 있다. 가령 口訣이 記寫된 책이 外國人의 손에서 保存되고 있다면, 그 口訣記寫의 年代는 刊年을 上限으로 하고 外國人의 손에 들어간 때를 下限으로 한다. 口訣은 우리나라 特有的의 것이기 때문에 外國人이 記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實例로서 壬辰亂에 日本으로 건너간 책을 들고자 한다. 그 口訣의 下限이 宣祖壬辰年 곧 1592年인 資料들이다. 刊年未詳인 刊本과 寫本인 경우에는 年代의 上限이 問題된다. 그러나 우리의 調査로는 口訣이 記寫된 寫本이 壬辰亂에 건너간 일은 없어 보인다. 刊年이 15世紀 以後로 이어지는 刊本에서만 나타난다. 요컨대 中世語의 口訣資料인 것이다.

이러한 資料는 면밀히 調査할 必要가 있다. 中世語의 口訣을 밝혀줄 뿐 아니라, 그것을 基準으로 하여 많은 國內資料의 年代를 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그러한 資料를 紹介하고 거기 나타난 口訣의 特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刊本の 口訣記寫가 갖는 資料의 價値를 確認하려는 것이다.

2. 心經附註의 口訣記寫

먼저 儒書인 心經附註를 紹介하고자 한다. 4卷1冊인 이 책은 宋나라 眞德秀의 心經에 明나라 程敏政이 註를 단 것이다. 中國보다도 우리나라에서 愛讀되던 책이어서 相當한 異本이 있다. 壬辰亂以前 刊本으로 筆者가 實査한 것만도 두엇 있다. 活字本의 覆刻도 두 異本이 있는데, 여기에는 1566년에 된 李滉의 心經後論이 卷末에 添付되어 있다. 이 後論이 附刊된 것은 1573年 以後의 일이므로, 모두 16世紀 後期의 刊行인 것이다.⁽³⁾ 그런데 여기 다루려고 하는 心經附註는 그 後論이 없다. 다른 異本보다 앞선 刊本이다.

日本의 蓬左文庫所藏인 이 心經附註는 行間에 借用漢字의 正字와 略字로 口訣이 全冊에 記寫되어 있다. 이 記寫의 年代가 問題된다. 그 下限은 藏書印으로써 1592年이라고 쉽게 斷定된다. 德川義直의 藏書印인 「御/本」(朱文方印)이 首葉欄上에 있다. 이 印記가 있는 韓國本은 壬辰亂에 日本으로 건너간 것으로, 아버지 德川家康에게서 義直이 물려받은 책들

(3) 心經後論의 添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筆者, 臺灣公藏의 韓國本에 대하여, 韓國學報 1(1975), p. 99, 특히 脚註 15.

이기 때문이다. 그 上限은 刊年이 없으므로 明確하지 않다. 그러나 日本에 가기 前의 藏書印이 있어서 年代推定의 有力한 根據가 된다. 즉 首葉 右下의 「辛璉/器之」, 「鷲山/世家」(각 朱文方印), 「直齋」(朱文香爐印)란 印記가 그것이다. 1549年(明宗 4) 文科, 光州牧使를 歷任하고 1573年(宣祖 6)에 卒한 辛璉의 手澤本임을 말하는 것이다.⁽⁴⁾ 같은 印記를 갖는 辛璉의 手澤本인 東槎續集(1562年刊), 小學日記故事(1566年刊), 大學衍義(甲寅字改刊本)가 蓬左文庫에 있다. 그러므로 記寫 年代의 上限은 16世紀 中葉이라 하겠다.

版式은 15世紀末에서 16世紀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다. 四周雙邊에 半郭 크기가 세로 24.7cm, 가로 17.1cm이다. 有界, 10行23字, 註雙行이다. 版心은 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인데, 特異하게도 書名이 없고 卷次와 張次만이 있다. 黑口와 魚尾 안에 刻手記名으로 보이는 「万스朴」이 보인다. 全羅道에서 刊行된 地方版이 아닌가 한다.⁽⁵⁾ 保存은 잘 되어 있으나 字劃이 조금 磨滅되고 印面의 着墨이 고르지 못하다. 初刷本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辛璉의 手澤本이기 때문에, 口訣뿐 아니라 같은 筆致로 本文에 대한 校正과 註釋도 記寫되어 있다. 若干의 例만을 들어 두기로 한다.

伊川說人心道心 天理人欲便是 朱子初從此說 後來定論 謂人心非人欲 今中庸序說之類 是也(I, 1b-問人心道心の 欄上)

曰上脫子字(I, 6b 易坤之六二曰의 欄上)

近思錄無如字 遺書有如字(I, 8b 知如何所寓의 欄上)

이러한 記寫는 本文의 內容과 關聯된 것이다. 儒學者가 이것에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例示로만 그치기로 한다. 우리의 關心은 이보다도 口訣에 대한 것이다. 이에 그 口訣記寫를 살펴보려 한다. 口訣은 正字와 略字를 細筆로 바른쪽 行間에 記寫하고 있다. 卷1 첫머리 第1行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단, 略字는 正字로 고치고 또 口訣에는 圈點을 친다.

帝曰人心隱 惟危爲古 道心隱 惟微爲尼 惟精惟一羅阿 允執厥中尼羅(I, 1a) <사진 1 참조>

이러한 口訣의 借字表記는 다른 刊本에도 있다. 그러면 이 책에 表記된 口訣의 特徵은 무엇인가. 形式과 內容의 두 面으로 나누어 說明하기로 한다.

첫째 形式의 面, 즉 借字의 字體上 特徵을 들 수 있다. 다른 資料와 마찬가지로 頻繁히 쓰이는 借字는 그 文字의 한두 劃으로 줄여서 表記된다. 즉 へ(是), ㄱ(隱), ㄱ(匡), ㄴ

(4) 辛璉의 죽음과 人品에 대하여는 柳希春의 1574年(甲戌) 1月 4日字 日記(朝鮮史料叢刊 第八 層巖日記草 四, p. 221)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聞光州前牧使辛璉器之 去年臘月 傷寒犯色而沒 量雖狹而才可用 治民可視 惜哉

(5) 陰刻인 版心의 刻手名인 「万」은 全羅道에서 刊行된 1563年의 家禮大全書(嘉靖癸亥谷城縣開刊 南原府移上の 刊記있음)와 1566年의 新增圖像小學日記故事大全(嘉靖丙寅季夏 錦山郡守李義臣의 跋있음)에도 보인다. 이들은 모두 蓬左文庫所藏인데, 더욱 後者의 책은 辛璉의 手澤本이다. 같은 무렵 全羅道에서 心經附註도 刊行되어 辛璉의 손이 들어간 것(그 때 光州牧使로 있었는지 모른다.)이 아닌가 한다. 參考로 壬辰亂前 政事撮要의 冊板目錄에 의하면 全羅道에는 南原과 光州에 心經附註의 冊板이 있다.

心經附註卷一

西山真氏

帝曰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

朱子曰心之虛靈知覺一而已矣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以其或生於形氣之私或原於性命之正而所以爲知覺者不同是以或危殆而不安或微妙而難見爾然人莫不有是形故雖上智不能無人心亦莫不有是性故雖下愚不能無道心二者雜於方寸之間而不知所以治之則危者愈危微者愈微而天理之公卒無以勝夫人欲之私矣精則察夫二者之間而不雜也一則守其本心之正

(爲), 匕(尼), 匕(飛)등이다. 그러나 다른 資料, 例컨대 다음에 紹介할 誠初心學人文에 比하면 劃數를 덜 줄이거나 아예 正字를 使用하는 일이 많다. 前者는 夕(多), 夕(羅) 등이 고, 後者는 훨씬 많은데 果, 矣, 叱, 亦, 底, 乎, 也, 加, 所, 地, 西 등이 그 例다.

둘째 內容의 面, 즉 用字上 特徵을 들 것이다. 모든 借字의 用法을 說明함으로써 그 特徵이 밝혀지겠지만, 여기서는 若干의 項目으로 要約하여 보이는 데 그치기로 하겠다.

그 1은 媒介母音에 의한 形態交替가 反映되지 않는 例이다. 體言末母音이 子母音이든 母音이든 관계없이 같은 借字가 쓰인다. 隱, 奴가 그 例다.

人心隱…異者隱 (I, 1a)

是以奴 (I, 1a)

必使道心奴 (I, 1b)

이와 마찬가지로 現象으로서 繫辭 是는 子音 아래서도 省略 表記됨이 普通이다.

惟精惟一羅阿 允執厥中尼羅

然乃 人莫不有是形羅

三者是 雜於方寸之間於等 (이상 I, 1a)

그 2는 같은 形態表記에 두 借字가 쓰이는 점이다. 字音이 完全히 같은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前者의 例는 五와 午, 後者의 例는 刀와 斗, 那와 乃다. 刀와 斗는 16世紀 文獻의 한글表記에서도 字音대로 나타나므로 當時의 言語事實을 그대로 反映한다고 하겠다. 乃是「乃終」의 例로 미루어서 俗音이 那와 같을지도 모르나, 重母音의 副音 j가 無視되어 나타난 混用으로 봄이 온당하다. 이 책에서 先語末接尾辭 「-러-」가 羅(字音, 러)로 적히고 있음도 그것이다. 이제 그 混用的 實例를 들어둔다.

有好好樂五(總目 2b)——心應此事午 (I, 10b)

豈不深可憫哉里五 (I, 2b)——何所知識里午(序 2a)

雖寢息之地羅刀(總目 3b)——雖下愚羅斗 (I, 1a)

然那 (I, 3b)——然乃 (I, 1a)

이러한 混用이 言語變化의 過渡期임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強勢의 沙와 阿, 共同格의 果와 臥가 그것이다. 前者는 「사>아」, 後者는 l 뒤의 「와>과」의 變化로 말미암은 것이다

皆歸於禮羅沙 方始是仁尼羅 (I, 16a)——惟精惟一羅阿 允執厥中尼羅 (I, 1a)

無欲之一臥 程子涵養吾一之一臥 (I, 10b)——聖賢所謂精一果 (IV, 12b)

그 3은 動詞의 表記에 관한 것이다. 主格은 是로만 表記된다. 刊本資料에는 伊도 보이나 記寫된 資料는 모두 是다. 그 略字가 一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屬格이 矣로 表記된다. 앞으로 말할 誠初心學人文과 같은 佛書에서 衣로 表記되는 것과는 對照的이다. 그 책에서 는 이 矣가, 이 책에서 代로 적힌 「디」를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處格은 厓, 於是, 亦是로 表記된다. 한글表記의 「에, 예, 예」에 對應한다. 그런데 母音 i, 半母音 j 뒤에서 亦是가 아닌 厓, 於是도 쓰인다. 한글表記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으므로, 순전히 借字表記上の 問題라 할 것이다.

未有議論時亦是 (I, 1b)

前時厓 (IV, 21a)

如入宗廟見君父之時於是隱 (I, 10b)

이러한 表記上의 混亂은 刊本資料에도 보인다. 呂氏鄉約諺解(出典表示는 1574年版 乙亥字本)와 重刊警民編諺解(1579年版)가 그러하다.

- 聚會厓(鄉約 14b)
- 吊禮厓(鄉約 17b)
- 春夏農務之時厓(警民 12b)
- 秋成即時厓(警民 12b)

그 4는 活用語尾에 나타나는 접이다. 가장 特徵的인 例가 假定을 뜻하는 「-거든」이 巨等으로 表記되는 것이다. 形態「거」와 「든」이 佛書에서는 刊本資料까지도 去와 入隱으로 나타난다. 口訣이 보여주는 儒書와 佛書의 差異인 것이다. 이 책의, 그 形態를 表記한 口訣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

巨隱大(I, 10a) 乎羅巨隱麼隱(IV, 20a) 於等(I, 3a), 於時等(I, 8a)

그밖에 先語末接尾辭를 表記한 時, 里, 是도 注目된다. 각각 尊敬과 推測을 뜻하는 時, 里는 誠初心學人文 등 佛書의 記寫에서는 示, 利로 나타나는 것이다. 恭遜法의 是는 誠初心學人文에서도 같다. 借字表記의 不完全性으로 말미암은 現象이라 생각된다.⁽⁶⁾ 이들 口訣의 例는 아래와 같다.

- 爲時尼(序 1a) 爲時彌(I, 16b)
- 爲里尼(I, 15a) 羅爲時里尼(I, 3b)
- 爲奴是多(I, 15b) 爲尼是多(I, 9a)

이상에서 말한 特徵을 갖는 心經附註 口訣表記에 나타난 借字의 一覽表를 提示함으로써 이 책의 紹介를 마치고자 한다.⁽⁷⁾ 借字는 釋과 音을 借用한 두 部類로 나뉜다. 前者를 訓讀字, 後者를 音讀字라 부른다. 각 訓讀字, 音讀字의 配列은 口訣의 가나다順에 따른다. 팔호안은 當時의 한글表記로 推定한 것이다.

1. 訓 讀 字

飛(ㄴ) 月(ㄷ) 加(더) 是(이) 爲(ㄹ)

2. 音 讀 字

[母音] 阿(아) 厓(애) 也(야) 於(어) 亦余(여) 五午(오) 臥(와) 矣(의)

[母音+子音] 言(언) 溫(온) 印(인)

[子音] 隱(ㄴ) 乙(ㄹ) 叱(ㅎ)

(6) 恭遜法接尾辭는 借字表記가 中世語의 刊本資料에서도 是 또는 伊로 되어 있다. 다만 地藏經에서 應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책에서도 伊로 나타나거나 아에 表記에서 無視되는 일이 있다. 모두 表記上의 問題라 생각되는 것이다.

(7) 이 一覽表는 不完全하다. 4卷 가운데서 卷 1. 4에서만 資料를 뽑았기 때문이다. 漏落된 例가 若干은 있겠지만, 이 책에 쓰인 借字에 대한 概略은 이로써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子音十母音] 可(가) 巨(거) 古(고) 果(과) 那乃(나) 奴(노) 尼(니) 代(덕) 多(다) 大(대)
 底(더) 刀斗(도, 두) 地(디) 羅(라) 驢(러) 里(리) 兀麼(마) 彌(머) 士(스) 舍(샤) 西
 (서) 所(소) 時(시) 沙(사) 乎(호) 屎(허)
 [子音十母音十子音] 等(든) 丁(녕) 面(면) 申(신)

3. 誠初心學人文의 口訣記寫

다음에는 儒書 心經附註와 對照의인 佛書 誠初心學人文을 紹介하려고 한다. 書名을 誠初心學人文이라 부르기로 하나, 事實은 5卷1册이어서 여러 책의 合部다.⁽⁸⁾ 그 內容을 괄호안에 版心書名과 通番號인 張次를 덧붙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誠初心學人文(戒 1~4) · 發心修行章(章 5~7) · 野雲自警序(自 8~16) · 四法語(法 17~20) · 蒙山法語(六 21~31)

가장 널리 읽혀진 佛書의 하나로서 여러 異本이 알려져 있다. 더욱 이들의 諺解本도 여러번에 걸쳐 重刊된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이 책은 日本國會圖書館所藏인데 「養安院藏書」(朱文長方印)란 印記가 있다. 이 印記를 갖는 다른 韓國本들과 함께 壬辰亂에 日本으로 간 책인 것이다. 刊記는 「嘉靖四十三年癸亥(1563, 明宗 18) 夏孟月日全羅道綾城地雙峯寺開刊」(六 21a)이라 있으나, 印面으로 보아 初刷는 아닌 듯하므로 16世紀末의 印出本이라 믿어진다.

모두 31枚의 작은 冊子다. 版式은 그 무렵 刊本과 비슷하다. 즉 四周單邊, 半郭의 크기가 세로 가로 각 16.7cm 11.2cm다, 界線이 없다.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野雲自警序는 8行16字, 法語類는 9行 17字로 되어, 行款이 다르다. 그 以前版의 系統이 다르기 때문인 듯하다. 版心은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간혹 三葉花紋魚尾(章 5~8등)도 있다. 下魚尾 안에 「云·민·玄」의 陰刻이 보인다. 刻手秩(六 21a)에 있는 法雲과 玄敏의 略稱이다.

이러한 版式과 刊記를 갖는 同一本이 다른 곳에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口訣이 墨書로 行間에 記寫되어 있다. 즉 正字와 略字로 借用된 漢字를 바른쪽 行間에 記寫한 것이다. 蒙山法語의 첫머리로서 그 實例를 보인다. 略字는 正字로 고치고 또 口訣에는 圈點을 치기로 한다.

話頭上厓 有疑不斷爲面 是名眞疑尼 若疑一上少時爲古 又無疑者是面 非眞心發疑羅 屬做作爲尼羅(六 21b) <사진 2참조>

이 책은 16世紀末에 印出되고 壬辰亂에 日本에 갔으므로, 이 口訣記寫의 年代는 16世紀末이다. 心經附註에는 若干 뒤지지만 거의 同時期의 資料라 할 수 있다. 이들의 比較로서

(8) 日本에서 改裝되어, 日本表紙에 四針眼釘法으로 裝訂이 되어 있으나, 原表紙도 그대로 日本表紙 안에 남아 있다. 原表紙에 墨書된 外題도 「誠初心學人文全」이라 되어 있다.

蒙山和尚法語略錄
 示古原上人
 話頭上有疑不斷是各真疑若疑一上少時
 又無疑者非真心發疑屬做作是故昏沈掉
 舉皆入作得更要坐得端正一者瞋魔來當
 知是何境界纔覺眼皮重便著精神提話頭
 一二聲瞋魔退可如常坐若不退便下地行
 數十步眼頭清明又去坐千萬照顧話頭及
 常常鞭起疑久久工夫純熟方能省力做到

16世紀後半의 儒書와 佛書의 口訣記寫의 特徵이 究明될 수 있다.

이제 誠初心學人文의 口訣이 보여주는 特徵을, 形式과 內容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째 借字의 字體가 보여주는 特徵이 있다. 頻繁한 用途의 借字는 한두 劃으로 줄여지는 일이 아주 徹底하다. 心經附註에서 劃數가 若干 줄여진 夕, 스는 1, 丶의 한 劃으로 表記된다. 또 正字로 나타난 것이 略字로 表記되어 있다. 즉 ㄴ(乎), ㄱ(舍), ㄹ(矣), ㅍ(衣), ㅌ(地), 戶(所), ㅍ(沙), ㄹ(利), 七(叱), 木(果) 등.

둘째 用字上의 特徵이 있다. 위의 心經附註와 比較하여 項目別로 說明하기로 한다.

그 1, 媒介母音에 의한 形態交替가 이 책에서도 反映되지 않는다. 助詞를 表記한 隱, 奴는 體言末音에 관계없이 쓰인다. 그러나 繫辭 是는 體言末音에 따라 省略된다. 한글表記와 같이, 末音이 i, j인 경우에 그러하다. 口訣 앞의 本文 끝 字와 그러한 表記를 보이던 다음과 같다.

夫是隱大隱(18a)——非隱大隱(1a)
 行是乃(6a)——智乃(6a)

護是尼(4a)——衣尼(10a)
 子是羅(5a)——致羅(3b)
 心是奴多(6a)——起奴多(7a)

그 2, 같은 形態는 언제나 같은 借字로 表記된다. 心經附註의 五와 午, 刀와 斗, 那와 乃는 午, 刀, 乃만으로써 表記되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例外가 없다. 強勢의 添辭가 心經附註에서는 沙와 阿로 나타났으나, 이 책에서는 沙뿐이다. 背景으로 가진 言語事實의 反映이기보다는 表記上의 問題가 아닌가 생각된다.⁽⁹⁾ 이 책의 表記가 保守의이면서 同時에 같은 形態를 一貫하여 同一하게 表記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3은 子音 n으로써 끝나는 音節을 分析表記하는 점이다. 위 心經附註에서 言, 溫, 印으로 表記되는 形態가 於, 午, 是와 隱으로 表記되고 있다.

是於隱(30a) 是於隱丁(1a); 是午隱(10a) 午隱(10b); 是隱大(12b) 是隱大隱(18a)

다른 文獻에서는 難, 論, 陳, 忽로 表記되는 것도 分析되어, 羅, 奴, 地와 隱 그리고 乎와 乙로 表記된다. 이 경우는 心經附註도 이 책과 같다. 그러나 이 誠初心學人文은 面을 除外하고, 徹底하게 分析表記를 採擇하고 있다. 그 借字表記의 한 特徵인 것이다.

爲羅隱矣(1a); 爲奴隱(26a) 爲奴隱地(6b) 奴隱地(4a); 乎之地隱大(26a)

그 4는 助詞의 表記에 관한 점이다. 다른 記寫資料와 같이 主格은 是로 表記된다. 그러나 屬格은 衣로 表記된다. 心經附註의 屬格 矣는 乎矣(호티), 爲舍矣(호샤티)와 같이 「티」를 表記하고 있는 것이다. 處格은 厓, 於是, 亦是로 表記된다. 心經附註와 달리 이 경우도 亦是가 쓰일 자리에 厓가 나타나는 일은 없다. 亦是로 固定되어 있다.

그 5는 活用語尾에 나타나는 特徵이다. 假定을 뜻하는 語尾「-거든」이 去入隱으로 表記되고 있다. 例外的으로 「-야든」이 也月隱, 즉 爲也月隱(21b)이라 表記되는 일도 있으나 이 去入隱은 心經附註를 포함하는 儒書와 다르고, 佛書의 口訣資料와 共通된다. 그 形態를 表記한 口訣만을 들어두기로 한다.

爲去隱大隱(30b) 爲去示尼(23a) 去隱大(15b) 去尼臥(31b) 去多(23a) 去入隱(6b)
 去示尼(17b) 爲也入隱(1b) 是於入隱(1a)

先語末接尾辭에서 恭遜法의 是는 心經附註와 같다. 그러나 尊敬과 推測을 뜻하는 接尾辭는 示와 利로 表記되고 있다. 이 책의 特徵이라 하겠다. 이들이 나타난 口訣의 若干例를 들기로 한다.

(9) 南方方言을 背景으로 한다면 1577年 松廣寺版 誠初心學人文 등과 같이 口蓋音化가 露出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方言差로써 여기 나타난 借字를 考慮할 수는 없음을 말한다. 口蓋音化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筆者, 壬辰亂直前 國語史資料에 관한 二三問題에 대하여, 震檀學報 33(1972), pp. 97—102.

爲示古(17a) 爲示飛尼(6a) 爲示弥(6a); 爲利羅(1b) 爲利弥(5b) 爲利午(24a) 乎利尼(17b)
乎利羅 (1a); 爲奴是多(17a) 乎利是多(17a)

그런데 恭遜法의 是와 繫辭의 是가 連結될 때, 다시 말하면 是가 二重으로 나타날 때는 그 중 하나의 是가 省略된다. 즉

僧是問趙州乎矣 狗子隱 還有佛性也是叱可 無是叱可(23a)

이 때 繫辭의 是가 省略表記되었다고 解釋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 말한 바와 같이 繫辭는 體言末音이 i, j인 경우에만 省略되기 때문에 차라리 恭遜法接尾辭 是의 省略이라 할 것이다. 이 是叱可에 該當하는 15世紀의 한글表記는 「| 잇가」(蒙山法語諺解 11a)다. 그렇다고 이 是叱可는 16世紀末 資料이므로, 한글表記의 「| 잇가」와는 다른 言語事實, 적어도 恭遜法接尾辭의 母音 i가 脫落된 事實을 反映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條件인 한글表記 「호리이다」(四法語 1a)가 이 책에서 乎里是多(17a)로表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是의表記에서는 한 是가 省略되는表記上의 規則을 設定함이 온당한 것이다.

先語末接尾辭의 하나인 謙讓法接尾辭가 白으로表記된다. 다른 이 時期資料에서는 보통 音讀字로 적히는 接尾辭인 것이다. 이 책의 口訣表記의 한 特徵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팔호 안에 1577年版 野雲自警序諺解(81-82)의 한글表記를 적어 둔다.

我今於是(에) 證明三寶爲白古(ㅎ읍고) 一一戒汝爲奴羅(ㅎ노니)(16b)

이상 誠初心學人文에 나타난 口訣表記 借字의 特徵을 몇 項目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러한 特徵을 보이는 借字의 一覽表를, 心經附註의 例에 따라 提示하여 둔다.

1. 訓 讀 字

飛(느) 月(뉘) 矣(터) 入(드) 白(읍) 是(이) 爲(ㅎ)

2. 音 讀 字

[母音] 阿(아) 厓(애) 也(야) 於(어) 亦(여) 午(오) 臥(와) 衣(의)

[子音] 隱(ㄴ) 乙(ㄹ) 叱(ㅅ)

[子音十母音] 可(가) 去(거) 古(고) 果(과) 乃(나) 奴(노) 了(뇨) 尼(니) 多(다) 大(대)
底(더) 刀(도) 地(디) 羅(라) 利(리) 兀(마) 弥(머) 米(미) 士(스) 舍(샤) 西(셔) 所
(소) 示(시) 沙(샤) 吐(토) 乎(호) 兮(히)

[子音十母音十子音] 丁(뉘) 面(면) 勿(물)

그런데 心經附註와는 달리 이 誠初心學人文은 한글로 口訣이表記된 諺解本이 있다. 이 諺解本과의 對校로써 이 資料의 性格을 살필 수도 있는 것이다. 法語類는 諺解本의 한글表記와 극히 微細한 差異를 보일 뿐이다. 거의 完全히 一致하고 있다. 四法語와 蒙山法語가 禪宗에서 차지하는 位置, 그리고 世祖朝의 諺解本에 나타난 口訣의 傳統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野雲自警序의 口訣은 文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字句上에서 相當한 差異를 보인다. 現在 가장 빠른 諺解本이 1577年 松廣寺版인 점도 있지만, 原典自體의 位置에 더 큰 理由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1577年版과 같은 諺解本인 1583年 瑞峯寺版의 口訣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 諺解本끼리의 두드러진 差異를 1577年版으로써 보이는데, 1583年版에서 달라진 口訣만을 괄호 안에 對照하여 써넣기로 한다.

行者이(1) 心淨^하면 諸天이 共讚^하고 道人이 變色^하면 善神이 捨離^하니(하느니) 四大忽散^하야(이라) 不保久住이니라(이니) 今日夕矣라 頗行朝哉인더(33 [發心 6a])

이 책의 借字口訣은 어느 것과도 같지 않다. 위 大文을 引用하면 알 수 있다.

行者是 心淨爲面 諸天是 共讚爲古 道人是 變色爲面 善神是 捨離爲飛尼 四大忽散爲也 不保久住是 尼 今日是 夕矣羅 頗行朝哉底(7a)

이로써 보면 새 책의 口訣은 다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보아서는 諺解本끼리 서로 가깝다. 그러므로 1577年版의 한글表記의 口訣로만 對照하여 이 책의 借字表記의 性格을 보기로 한다.

結論부터 말한다면 이 책의 口訣은 諺解本에 比較하여 더욱 原典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극히 相對的인 뜻에서, 그리고 口訣도 一種의 翻譯이라 한다면 이 책이 보다 直譯인 것이다. 그것은 첫째 名詞的 表現이 쓰였고 둘째 敬語法이 덜 嚴格하기 때문이다.⁽¹⁰⁾ 다음 例文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1, 2가 前者, 1과 3이 後者의 例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 夫語佛諸佛是(이) 莊嚴寂滅宮隱(하사면) 於多劫海亦是(예) 捨欲苦行是午(하사미오)(5a [22a])
2. 故奴(로)破戒爲古(코) 爲他福田爲奴隱地(하면) 如折翼折鳥是(이) 負龜(코) 翔空是尼羅(로하느니) (6b [31a])
3. 古曰(하사터)不遠人是於乙(이어늘) 自遠矣羅爲弥(라하시며) 又云(하사터) 我欲仁是面(이면) 斯仁是至矣羅爲尼(라하시니) (16a [81b])

4. 結語——關聯 口訣記寫 資料

이제까지 16世紀의 口訣記寫의 資料인 心經附註와 誠初心學人文을 紹介하였다. 두 책은 疑心할 나위없는 中世語의 口訣記寫를 提供하는 점에서 國語史의 貴重한 資料가 된다. 또 多幸히도 儒書와 佛書인 두 책은 記寫資料에 나타나는 儒佛書의 口訣表記의 差異를 알려주는 資料인 점에서 그 價値는 큰 것이다. 위의 紹介에서 두 資料의 對照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점을 配慮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들의 價値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거기 나타난 口訣表記를 基準으로 하여 다른 類似資料를 評價할 수 있는 利點을 갖는다.

(10) 翻譯의 直譯과 意譯이 國語史資料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筆者, 中世國語 研究資料의 性格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9卷1號(1973), pp. 75-86.

이제 그러한 事實을 說明하려고 한다.

먼저 心經附註의 경우, 奎章閣所藏 戊申字本 心經附註의 한 책(중 1456)에 記寫된 口訣의 性格을 밝혀 주는 것이다. 이 戊申字本은 18世紀 中葉의 刊本으로 믿어지는데, 「侍講院」(朱文長方印, 大小兩印)이란 印記가 있다. 經筵에 使用되던 책이라 생각된다. 細筆로 口訣이 바른쪽 行間에 記寫되어 있다. 略字가 쓰이고 있으나, 앞에 紹介된 辛璉手澤本 心經附註보다도 오히려 덜 나타난다. 이것은 經筵이란 特殊한 性格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口訣은 近代語의 性格을 갖는다. 책의 刊年이 그것을 말하지만, 辛璉手澤本과의 比較로서 確認되는 것이다.

우선 例文을 들기로 한다. 괄호안이 辛璉手澤本의 記寫다.

道也者飛隱(隱) 不可須臾離也是尼(尼) 可離面(隱) 非道也是羅(羅) 是故奴(奴) 君子飛隱(隱)
(I, 34b [20b])

以子朱子尊德之銘乙奴(奴) (序 1a [序, 1a])

여기 나타난 差異는 繫辭 是와 助詞 飛隱과 乙奴다. 그러나 注意할 것은 戊申字本이 18世紀資料기 때문에 이 差異가 생겼다고 斷定하는 일이다. 中世語의 資料에서도 戊申字本과 같이 나타나는 例가 있다. 즉 위의 誠初心學人文의 是는 이 戊申字本과 같고, 또 16世紀 刊本資料인 乙亥字本 書傳大文과 地藏經에서 飛隱과 乙奴는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飛隱(書傳上 41a, 41b 地藏上 11a, 14a)

乙奴(書傳上 15a, 16a 地藏上 4a, 5a)

그러므로 辛璉手澤本은 文脈의 混亂이 없는 限 되도록 簡便한 表記를 採擇한 데 대하여, 戊申字本은 媒介母音에 의한 形態交替까지도 表記에 反映하려고 한 데 말미암은 差異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差異點도 따지고 보면 戊申字本이 中世語의 借字表記 예컨대 書傳大文 등의 그것을 踏襲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戊申字本이 近代語資料이기 때문에 달라진 借字는 地가 之로 된, 즉 口蓋音化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다음 例이다. 口蓋音化는 南部方言을 反映하는 一部 資料를 除하고는 近代語資料에 비로소 나타나는 現象인 것이다.

又歸宿於我爲奴隱之(爲奴隱地) (I, 26a [15b])

이밖에 強勢의 添辭가 也로 나타나는 例(是羅也 IV, 17a)도 있으나,⁽¹¹⁾ 戊申字本의 口訣 記寫가 近代語資料란 事實은 表記보다 表記된 口訣自體에서 더 잘 드러난다. 다음이 그 例다.

(11) 口訣表記의 借字自體에서 近代語資料와 中世語資料의 差異는 앞으로 綿密한 研究가 있어야 한다. 本論에 言及된 것 以外에도 微細하지만 差異는 있다. 刊本資料에서 그 한 例를 든다면 先語 末接尾辭의 驢, 汝가 近代語資料에서는 戻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 戊申字本에서 戶로 나타나는데, 驢와 戻 중 어느 글자의 略字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이러한 印出資料와 記寫資料를 網羅한 檢討가 先行되어야만, 위 本論의 記述도 더욱 確實해질 것이다.

仲弓是(是)問仁爲隱大 子是(있음)曰出門如見大賓爲彌(爲彌) 使民如承大祭爲古(爲彌) 己所不欲之(乙) 勿施於人是尼(面) 在邦無怨爲彌(爲彌) 在家無怨是尼羅(尼羅)(I, 32b [19a])

論語顏淵篇의 一節인 이 大文의 口訣이 戊申字本은 宣祖朝 校正廳本 論語諺解(II, 19a)의 한글 表記와 完全 一致하고 辛璉手澤本은 差異를 보여 주는 것이다. 校正廳本이 나온 以後의 資料, 따라서 近代語資料에 나오는 經書口訣은 모두 校正廳本에 一致하고 있으나, 그 以前의 資料인 中世語資料에서는 差異를 보이기도 한다. 이로써 戊申字本이 近代語資料, 辛璉手澤本이 中世語資料임을 確認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誠初心學人文의 경우, 國立中央圖書館所藏인 六祖大師法寶壇經의 口訣記寫의 年代를 判定하는 것이다. 이 六祖壇經은 「弘治九(1496, 燕山 2)年五月日慶尙道居昌土玉泉寺開板」이란 刊記가 있다. 15世紀末 刊本인데 細筆로 口訣이 記寫되어 있다. 記寫年代에 대한 아무런 記錄이 없으나, 口記表記가 誠初心學人文에 거의 一致하므로 中世語資料라 할 수 있다. 이 책에 쓰인 借字의 一覽表를 먼저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誠初心學人文에 없는 借字만 괄호안에 한글表記를 보인다.

1. 訓 讀 字

飛 月 矣 加(더) 入 是 其(저) 爲

2. 音 讀 字

[母音] 阿 厓 也 於 亦 午 臥 衣

[子音] 隱 乙 叱

[子音+母音] 可 去 古 果 乃 奴 了 尼 多 大 刀 地 羅 驢(러) 利 弥 未(미) 士 舍 西 所 小(쇼) 示 沙 之(지) 他(타) 乎 兮

[子音+母音+子音] 丁 田(덴) 萬(만) 面 勿

이 表를 보면 誠初心學人文과 같음을 알 수 있다. 部分的인 差異가 없지는 않다. 正字로 고쳤으므로 이 表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誠初心學人文과 略字表記가 一致하는데 다만 略字인 所가 이 책에서는 正字로 쓰였다. 形態交替, 音節末音 n의 分析表記, 助詞와 先語未接尾辭의 表記도 一致한다. 그러나 ㄱ隱으로 分析表記된 「만」이 이 책에서는 萬으로 된 접과 白으로 表記된 謙讓法接尾辭가 士午로 나타난 점이 다르다. 특히 後者의 表記는 「ㅎ습-」이 「ㅎ습-」인 南部方言을 使用한 사람의 記寫가 아닌가 한다. 刊地가 慶尙道인 점도 이것을 支持하여 주고 있다. 그 口訣의 例는 다음과 같다.

爲士臥(7a) 爲士午尼(3b) 爲士午矣(25a) 爲士古(25a) 爲士奴尼(8b)

그런데 마지막 2例가 보여주듯 音節末音 p가 無視되고 있다. 매우 不完全한 表記다. 그러므로 強勢의 沙와 같이 이 士도 單純한 表記上의 問題일지 모른다. 이 책에 쓰인 借字表記 가운데 나타난 한글 「ㄱ」은 그러한 不完全한 表記를 止揚하려는 하나의 흔적으로 理解

되는 것이다.

師是 自黃梅得法爲舍_ㄴ奴_ㄴ 回至韶州曹侯村爲示_ㄴ尼(40a)

이와 같이 誠初心學人文과 若干의 差異가 없지는 않으나, 그 全般的인 檢討에서 六祖壇經의 口訣記寫가 中世語資料임은 움직일 수 없다. 더우기 1469년의 六祖壇經諺解의 한글表記의 口訣과 一致되는 事實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誠初心學人文에는 없는, 이 책에만 나타난 借字의 한두 例로써 그것을 보기로 한다. 팔호안이 諺解本의 한글表記다.

他日於是 造塔爲示_ㄴ之_ㄴ其伊(호실제) 幸望存留爲小西(호쇼서) (4b [序 16b])
若論相說乎之田(홀멘) 里數是(1) 有十萬八千尼(이니) (26b [上 89a])

이로써 墨書로 記寫된 中世語資料인 心經附註와 誠初心學人文의 紹介와 거기 나타난 口訣에 대한 說明, 아울러 關聯된 다른 資料에 대한 性格究明을 試圖한 本論을 마치기로 한다. 이것을 契機로 하여 古圖書에 나타나는 口訣記寫의 價値가 正當하게 認識되어 그에 대한 研究가 活潑하게 일어났으면 한다. 이것이 이 글의 意圖인 것이다. 그러나 奎章閣設立 200周年을 맞이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은, 좀더 具體的으로 奎章閣에 所藏된 侍講院 圖書에 있는 口訣記寫에 研究者의 注意를 喚起시켰으면 하는 筆者나름의 意圖도 있다.

아는 바와 같이 奎章閣에는 侍講院舊藏의 圖書가 相當히 收藏되어 있고, 그 중에는 口訣이 記寫된 것도 적지 않다. 위의 戊申字本 心經附註도 바로 그러한 책이다. 이들은 大部分이 18世記의 資料로 보인다. 그러나 心經附註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資料에는 借字表記의 保守性과 經筵의 오랜 口訣의 傳統으로 말미암아⁽¹²⁾, 近代語資料라고만 하지 못할 事實도 나타난다. 이러한 複合的인 要素는 資料로서의 缺點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觀點에 따라서는 長點일 수도 있다. 아무쪼록 奎章閣藏書의 價値가 이와 같은 口訣資料의 研究로써도 드

(12) 經筵에서 使用되는 책에 口訣이 記寫된 것은 柳希春의 日記에 昭詳하다. 宣祖即位年인 1567年 丁卯 11月 4日字의 日記를 비롯하여 1576年 丙子 7月 27日字의 日記까지 大學의 口訣에 관한 記事만도 10餘處 나타난다. 그 마지막 記事들인 1576年 7月 20日頃의 記事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上下付御覽大學一册 令臣標點輯釋(7月 23日) / 余又看詳經筵册大學註吐 以上命書寫官懇吐御覽册故也(7月 26日) / 書寫官鄭致 來書大學輯 取者以青墨 不似朱 恐傷聖上之眼也(7月 26日) / 手校玉堂大學口訣 欲以正御覽册也(7月 27日)

그러나 이러한 口訣資料가 壬辰亂과 같은 戰火로 國內에서 現在 볼 수 없게 된 것은 매우 遺憾이다. 그러한 資料가 日本에 어느 程度 남아 있는지 앞으로 調査하여야 할 것이다. 筆者가 偶然히 본 甲寅字本 高麗史節要(蓬左文庫所藏)가 그러한 책이다. 1453(端宗 1. 景泰 4)년에 印出된 이 책에는 「經/筵」(朱文方印)이란 印記가 책머리에 있다. 그런데 이 책의 欄上에 한글로表記된 口訣의 附箋이 있는 것이다. 口訣이 들어갈 句節의 끝 漢字와 口訣을 적은 附箋이 添附되어 있다. 그 한 例를 든다.

制호시고 曰호사터 朕이 制는 詳이오 民은 命을 慎이니 者에 主 | 官과 號를 野 | 라호야 制호니 年이로되 知호야 亂호더니 制호되 者란 制호라(I, 9a)

이러한 表記方式은 15世紀末-16世紀初의 刊本으로 믿어진 周易傳義大全 卷 XV-XXI(日本宮內廳書陵部所藏)以來的 刊本에 가끔 나타난다. 그것은 어쨌든 이 資料가 經筵에서 所用된 책에 나오는 口訣資料임에는 틀림없다. 行間에 借字로 記寫된 資料도 없지는 않으리라 期待된다.

러나게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 것이다.

끝으로 古書를 收藏하고 또 閱覽시키고 있는 모든 圖書館에 대한 要望을 덧붙임으로써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墨書의 記載가 古書에 나타난다면, 그 事實은 圖書目錄書나 圖書카드에 반드시 記載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大部分의 圖書目錄書 등에서 이것이 전혀 考慮되지 않고 있다. 실지로 우리가 다루어온 心經附註와 誠初心學人文은 각기 그들 目錄書에 登錄되어 있으나, 口訣記寫에 대하여는 아무런 但書도 없다. 이들은 國外的 일이지만, 國內資料인 六祖法寶壇經이 그 解題에서조차 言及이 없음은 遺憾스런 일이다. 다만 戊申字本 心經附註에 대한 目錄書만이 例外다. 이 例外인 조그만 記載가 研究者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른다. 古書에 나타난 墨書의 價値가 認識되어 目錄書 등에 適切한 方法으로 表示되기를 敢히 提言하는 것이다. (14)

(13) 口訣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提言을, 다른 곳에서도 한 일이 있다. 前註 1의 앞 論文, p. 10 참조. 여기서 다룬 資料의 目錄書, 또는 解題를 附記하여 둔다. 앞 3冊에서는 口訣記寫가 無視되어 있는 것이다.

名古屋市蓬左文庫漢籍分類目錄(蓬左文庫編, 1975) p. 64 心經附註項/國立國會圖書館所藏朝鮮關係資料目錄(日本國立國會圖書館參考書誌部編, 1975) p. 3 誠初心學人文項/선본해제 I (국립중앙도서관編, 1970) pp. 102-3 六祖法寶壇經項/奎章閣圖書中國本總目錄(서울대학교附屬圖書館編 1972) p. 207 心經附註(戊申字本)項.